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의 신분과 가계 및 혼인

김 두 헌*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혼인 |
| II. 연구대상 파악 | V. 결론 |
| III. 신분과 가계 | |

| 국문초록 |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신분과 가계 및 인척관계를 탐구한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사자관들이 총 18명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들이 수록된 典據들을 일일이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들 모두가 『寫字廳先生案』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자청선생안』의 사자청 선생들이 사자청의 고위 사자관직을 역임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방증하였고, 역으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이 실제로 실력 있는 사자관들이었다는 것을 방증하였다. 그리고 본고의 말미에 『사자청선생안』에 이들에 대해 수록된 내용을 보완하여, 『朝鮮後期 通信使行 隨行 寫字官案』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둘째,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이 속한 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가계들이 잡과

* 군산중앙고등학교 교사 / 77history@hanmail.net

와 주학 입격자를 다수 배출한 명문 기술직 중인 가계였으며, 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일부 사자관들의 신분은 기술직 중인이거나 그와 동등한 사회 신분적 위계의 신분이었다고 유추하였다. 주요 기술직 중인 가계에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양상을 파악한 결과, 주요 기술직 중인 가계의 별열화 양상과 아울러, 1명의 사자관을 배출한 가계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명 이상의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각 가계 출신의 수행 사자관들이 대부분 서로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선발하는데 부계 혈통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하였다. 그리고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과 대일본사행 참여 역관을 모두 배출한 가계에서 수행 사자관을 먼저 배출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서 수행 사자관의 역할도 참여 역관의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혼인 양상을 살펴본 결과, 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들과 대일본사행 참여 역관들 사이에서, 외가나 처가 등 직접적인 혼인 관계를 형성한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사이를 벗어났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의 인척관계를 형성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이 사실을 근거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선발하는데 본인의 능력은 물론, 인척관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유추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지닌 능력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기술직 중인 사회 내에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제어 : 통신사행, 사자관, 기술직 중인, 신분, 가계, 혼인

I. 서론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통신사행¹⁾을 수행한 寫字官²⁾들을 연구 대상

1) 조선후기 통신사 및 한일 관계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 주목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元植, 『朝鮮通信使』, 민음사, 1991. 홍성덕,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 전북사학회, 1992;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涉』, 『韓日

으로 삼아, 이들의 신분 및 가계와 혼인 양상을 탐구하겠다.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통신사행을 12차례 파견하였다. 통신사행 파견으로 조일 양국의 외교적 교섭뿐만 아니라 문학, 학문, 예능 면에서의 문화적 교섭도 이루어졌다. 예능 면에서는 서화, 음악, 연희, 마상재 등의 교류가 있었는데, 이들 교류 중 조선의 書畫가 일본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이나 畫員은 일본에 조선의 서화를 전파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통신사행 수행 화원에 대한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행하여졌지만,³⁾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가

關係史研究』제3집, 한일관계사연구회, 1995; 『조선후기 對日 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韓日關係史研究』 제11집, 한일관계사학회, 1999. 윤유숙,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집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이철성, 「통신사와 연행사의 비교연구」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집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장순순, 「朝鮮時代 通信使 研究의 現況과 課題-한국측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집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조광, 「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와 쟁점사항」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집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趙誠乙, 「韓國과 日本의 華夷觀의 變化와 相互認識-朝鮮後期和 德川幕府期를 중심으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집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韓泰文, 「通信使 往來를 통한 文化交流」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집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현명철, 「통신사 단절과 서계 문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집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 2) 조선시대 외교 문서 書寫는 초기에는 문관이 전담하였다가, 선조 연간에 승문원의 사자청에 전문적인 사자관 관직을 따로 설치하여 이들이 하여금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사자청의 전문 사자관에는 선조 연간에는 주로 양반 서얼들이 진출하였고, 17세기 중 후반부터는 기술직 중인이 이 관직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김두현, 「『增補寫字廳先生案』과 조선시대 사자관의 신분」 『古文書研究』 24, 한국고문서학회, 2004;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220~251쪽).
- 3) 전통기(확인요망) 시대 국제간의 문화 교류에서 시, 서, 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행에 참여한 화원에 대한 기존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원식, 「江戸時代における朝鮮通信使の遺墨について」 『朝鮮學報』 88, 1978. 홍선표, 「17·18世紀의 韓日間 繪畫交涉」,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79;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 畫員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 1997;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 화원의 繪畫 活動」, 『미술사논단』 6, 1998; 「朝鮮時代 繪畫史 研究의 새로운 시각」 『서평문

처음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먼저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을 각종 사행록에서 찾아내어 그 명단을 확보하겠다. 이어서 이들 사자관들을 『寫字廳先生案』⁴⁾에서 찾아보겠다.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사자관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사자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는 사자관들이 조선시대 고위 사자관을 지낸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⁵⁾ 따라서 『사자청선생안』에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이 얼마나 수록되어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이 실제로 실력 있는 사자관들이었는가를 증명해 보려고 한다. 역으로 『사자청선생안』의 사료로서의 신뢰성도 측정해 보려고 한다. 한편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사자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는 사자관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보완하여, 『增補寫字廳先生案』⁶⁾이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이 『증보사자청선생안』에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에 대한 기록들을 발췌하고 보완하여, 본고의 말미에 「朝鮮後期通信使行隨行寫字官案」이라는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부록으로 제시

화』 35, 1999. 이정은, 「朝鮮 通信使 隨行 畫員이 日本에 남긴 繪畫 特性」, 『傳統文化論叢』 12, 2004. 홍선표,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과 일본 南畫」, 『조선통신사연구』 1, 2005. 강대민·이정은, 「조선통신사 수행화원 연구」,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0, 學古房, 2008. 김동철, 「倭館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0, 學古房, 2008. 이정은,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 畫員의 選拔 要因」,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0, 學古房, 2008.

- 4) 『사자청선생안』은 『畫寫兩家譜錄』이라는 자료의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다. 『화사양가보록』은 위창 오세창(개화 사상가 오경석의 아들)이 20세기 초반에 작성하였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畫寫兩家譜錄』,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5) 김두현, 앞의 논문, 2004; 앞의 책, 2013, 200~221쪽.
- 6) 『사자청선생안』에 수록된 정보의 종류는 비교적 다양하나 개개의 사자관들에게 수록된 정보의 양은 지극히 적다. 많아야 3~4개 정도이다. 이러한 『사자청선생안』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증보사자청선생안』이다(김두현, 앞의 책, 2013, 329~415쪽).

하겠다. 이는 앞으로 조선시대 사자관 및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그리고 기술직 중인의 대일 외교 참여 양상 등을 탐구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Ⅲ장에서는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가계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알아보겠다. 먼저 이들이 속한 각 가계를 기술직 중인 가계기록에서 찾아내고, 이어서 이들 각 가계에서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배출한 양상을 파악하여 보겠다. 이는 이들의 신분이 기술직 중인이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기술직 중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속한 가계가 기술직 중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가를 측정해 보려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조선후기에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에 잡과와 주학 입격을 각 기술직 중인 가계에서 시기가 흐를수록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며,⁷⁾ 고위 기술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잡과와 주학에 입격하여야만 하였고,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기술직 중인 사회에서 엘리트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들이 속한 각 가계에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과 일반 잡직 사자관, 그리고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을 배출한 양상 등을 서로 비교하여 보겠다. 이는 일부 유력한 가계에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독점하였는가의 여부, 잡직 사자관을 많이 배출한 가계에서 역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많이 배출하였는가의 여부, 그리고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배출 양상과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 배출 양상⁸⁾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는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많이 배출한 가계에서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도 많이 배출하였다고 한다면, 이들 가계에서는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먼저 배출하였는가, 아니

7) 김두헌, 앞의 책, 2013, 191~194쪽.

8)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에 대한 필자의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 9)를 참고하기 바란다.

면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을 먼저 배출하였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겠다. 이는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들이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선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IV장에서는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혼인관계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히 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들과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들이 서로 외가나 처가로 연관되어 있었는가를 알아보겠다. 이는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에 임명되는데, 이들의 인척관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신분과 가계 및 혼인에 대해 탐구한 결과를 근거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과 가문, 그리고 인척관계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종합하여 언급하려고 한다.⁹⁾ 본고의 연구 결과가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활동, 조일 문화 교류 양상, 조일 외교사의 전개 과정 등을 밝히는데, 그리고 조선후기 기술직 중인 사회의 혈연관계와 인척관계의 기능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9)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들의 가계와 혼인에 대한 필자의 선행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참여한 역관들의 신분은 기술직 중인 이었고, 이들이 속한 가계는 대부분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다수 배출한 명문 가계였지만 소수의 입격자를 배출한 가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 이들 역관들을 다수 배출한 명문 가계가 일부 존재하였고, 이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인척관계는 극히 적었지만, 넓은 범위로 이루어진 인척관계는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서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이 되는데 혹은 선발하는 데 그 요건으로, 능력을 가장 중시하였지만 가문이나 인척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김두현,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동북아논총』 41, 2013).

II. 연구 대상 파악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는 1607년(선조 40)부터 1811년(순조 11)까지 12차례에 걸쳐 에도 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通文館志』에는, ‘통신사행에 파견하는 사자관의 정원은 2명이며, 글씨를 잘 쓰는 자를 골라서 보낸다.’¹⁰⁾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규정대로 사자관이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명 또는 1명의 사자관이 파견되기도 하였고, 아예 한 명도 파견되지 않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행을 수행한 사자관들의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행 수행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서 이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모두 18명을 찾아냈다.

<표 1>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사자관 일람 및 典據

연도	성명(관직)	典據
1607(선조40)	·	『海槎錄』(慶暹 著, 『海行』 II, 339쪽)
1617(광해 9)	宋孝男(護軍)	『扶桑錄』(李景稷 著, 『海行』 III, 13쪽)
1624(인조 7)	李誠國	『海槎錄』(姜弘重 著, 『海行』 III, 162쪽)
1636(인조14)	朴之英	『海槎錄』(金世濂 著, 『海行』 IV, 184쪽)
1643(인조21)	朴崇賢, 金義信	『通信使謄錄』 1, 42~44쪽
1655(효종 6)	金義信(前參奉), 鄭琛(前司果)	『扶桑錄』(南龍翼 著, 『海行』 V, 325~328쪽) 『通信使謄錄』 1, 305~310쪽.
1682(숙종 8)	李三錫(上護軍), 李華立(上護軍)	『海槎日錄』(金持南 著, 『海行』 VI, 248~252쪽) 『通信使謄錄』 1, 682~685쪽.
1711(숙종37)	李壽長(上護軍), 李爾芳(上護軍)	『東槎錄』(金顯門 著, 247~253쪽) 『通信使謄錄』 2, 348~350쪽
1719(숙종45)	鄭世榮(上護軍), 李日芳(上護軍)	『通信使謄錄』 3, 410~413쪽

10) 『通文館志』 권6 交隣, 通信使行, “通信使行…寫字官二員 善寫者擇送”

연도	성명(관직)	典據
1748(영조24)	金天秀(嘉義), 玄文龜(上護軍)	『戊辰(1748)二月十一日通信使一行座目』 『通信使謄錄』 4, 367~371쪽
1764(영조40)	洪聖源(前僉正), 李彦佐(上護軍)	『朝鮮通信使一行座目』 『海槎日記錄』(趙巖著, 『海行』 VII, 568~572쪽) 『通信使謄錄』 5, 243~245쪽
1811(순조11)	皮宗鼎	『文化八年信使一行座目其外雜記』 『通信使謄錄』 5, 495~497쪽

<표 1>과 같이, 조선후기에 처음으로 파견된 통신사행은 1607년(선조 40) 통신사행인데, 이 때에는 사자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11회의 통신사행에는 모두 사자관이 파견되었다. 하지만 이 11회의 통신사행에 사자관이 항상 2명씩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1643년(인조 21)부터 1754년(영조 30)까지 7회의 통신사행에는 각 사행마다 사자관이 2명씩 파견되었지만(이들을 합하면 14명이 된다.), 1643년(인조 21) 이전의 통신사행인 1617년(광해 9), 1624년(인조 2), 1636년(인조 14) 등 3회의 통신사행과, 1754년(영조 30) 이후의 통신사행인 1811년(순조 11) 통신사행에는 각각 1명씩 파견되었다(이들을 합하면 4명이 된다.). 곧, 총 11회의 통신사행에 18명의 사자관이 파견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18명 중 金義信은 1643년(인조 21) 통신사행과 1665년(현종 6) 통신사행 등 두 차례 사행에 모두 사자관으로 파견되었다. 따라서 실제 인원은 17명이 된다.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은 『통문관지』에 수록된 바와 같이, 실제로 글씨를 잘 쓰는 사자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통신사행 수행 과정에서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데, 글의 내용 못지않게 글씨체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신사행을 수행할 정도의 사자관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외교 문서 등 각종

문서의 書寫를 전담한 사자청의 사자관들 중에서도 고위 사자관직을 역임한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이들이 고위 사자관직을 역임하였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가 선행 연구에서 고위 사자관을 지낸 자들이 수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사자청선생안』에서 이들을 일일이 찾아보았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아래 <표 2>와 같이 앞의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17명이 모두 『사자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17명은 사자청의 사자관 중에서도 글씨를 잘 쓰는 사자관들이었다는 것은 물론, 고위 사자관직을 역임한 자들이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사자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는 사자관들이 고위 사자관직을 지낸 자들이었을 것이라는 필자의 선행 연구의 추정이 실제에 부합한다는 방증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표 2>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寫字廳先生案』 수록 현황
(가나다 순)

* 아래 표의 ‘순번’란은 『寫字廳先生案』에 수록된 순번을 뜻한다.

순번	성명	통신사행 수행 연도	수록 순번	순번	성명	통신사행 수행 연도	수록 순번
1	金義信	1655(효종 6) 1643(인조21)	93	10	李爾芳	1711(숙종37)	177
2	金天秀	1748(영조24)	247	11	李日芳	1719(숙종45)	184
3	朴崇賢	1643(인조21)	85	12	李華立	1682(숙종 8)	127
4	朴之英	1636(인조14)	63	13	鄭世榮	1719(숙종45)	175
5	宋孝男	1617(광해 9)	156	14	鄭 琛	1655(효종 6)	86
6	李三錫	1682(숙종 8)	135	15	皮宗鼎	1811(순조11)	253
7	李誠國	1624(인조 7)	335	16	玄文龜	1748(영조24)	227
8	李壽長	1711(숙종37)	148	17	洪聖源	1764(영조40)	260
9	李彦佑	1764(영조40)	267	·	·	·	·

Ⅲ. 신분과 가계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17명이 속한 각 가계를 여러 기술직 중인 가계 기록에서 찾아보았다. 사용된 자료는 기술직 중인 종합보인 『姓源錄』,¹¹⁾ 그 후속편인 『姓源錄續編』,¹²⁾ 기술직 중인 팔세보류,¹³⁾ 그리고 각 기술직 중인 가계에서 편찬한 개별 姓譜 등이다. 그 결과, 1867년(고종 4)에 간행된 『川寧玄氏世譜』,¹⁴⁾ 철종 9년(1858)에 간행된 『全州李氏族譜』¹⁵⁾ 등 기술직 중인 가계의 개별 성보와, 『성원록』 등에서 연구 대상 17명 중 12명의 가계를 찾아내었다. 이어서 이들이 속한 각 가계에서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과목별로, 그리고 세기별로 얼마나 배출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아래 <표 3>이다.

<표 3>과 같이, 가계를 찾아낸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12명 중에는 가계가 서로 같은 자들이 있었다. 곧, 이들 12명 중에 4명은 같은 전주 이씨(02) 가계 출신이었고, 2명은 같은 한천 정씨(단) 가계 출신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은 이들이 속한 가계가 서로 달랐다. 이들이 속한 가계는 김해 김씨(02) 가계, 선산 김씨(01) 가계, 천안 이씨(01) 가계, 홍천 피씨(01) 가계, 천녕 현씨(단) 가계, 남양 홍씨(04) 가계였다. 이상과 같이 가계를 찾아낸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12명이 속한 가계는 8가계였다.

11) 『姓源錄』, 李昌鉉等纂, 旴晷社 영인, 1985.

12) 『姓源錄續編』, 5책, 필사본, 개인 소장.

13) 『醫譯籌八世譜』, 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籌學八世譜』, 1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譯科八世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醫科八世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譯等第譜』,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醫等第譜』, 1책, 국립중앙도서관.

14) 『川寧玄氏世譜』, 4권 4책, 1867, 개인 소장.

15) 『全州李氏族譜』, 8권 8책, 1858,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표 3> 조선 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이 속한 각 가계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 배출 양상¹⁶⁾

성관 (가계)	통신 사행 수행 사자관	잡과와 주학 입격자														
		소계	과목별					세기별								
			역 과	운 과	올 과	의 과	주 학	16c		17c		18c		19c		
전	중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金海金02	1	46	19	4	11	10	2	·	·	·	·	6	4	12	13	11
善山金01	1	16	12	2	1	1	·	·	·	·	·	3	·	2	3	8
全州李02	4	152	52	20	3	30	47	·	·	·	9	11	36	42	34	20
天安李01	1	30	7	·	2	18	3	·	·	·	·	6	1	5	7	11
漢川鄭단	2	9	·	·	2	7	·	·	·	·	2	2	4	1	·	·
洪川皮01	1	39	7	12	·	20	·	·	·	·	1	2	·	6	15	15
川寧玄단	1	214	105	13	5	46	45	·	·	·	11	33	36	30	49	55
南陽洪04	1	14	6	7	·	1	·	·	·	·	·	1	1	2	3	7

앞의 8가계에서는 <표 3>과 같이, 모두 다수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배출하였다. 당계는 214명, 적계는 9명을 배출하였다. 따라서 앞의 8가계 출신 12명의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이 속한 각 가계에서는 다수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배출하였으므로, 이들의 신분은 기술직 중인이었다고, 그리고 이들이 속한 가계는 유력한 기술직 중인 가계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¹⁷⁾

16) <표 3>에서 姓貫 다음의 () 안에 기록된 ‘단’, ‘01’, ‘02’ 등은 가계를 뜻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뜻으로 표기하였다. ‘단’은 어느 한 성관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들이 모두 단일 가계를 이룬다는 뜻이고, ‘01’, ‘02’ 등은 어느 한 성관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들이 다시 여러 가계로 나누어지는 경우 입격자를 다수 배출한 순서대로 각각의 가계의 명칭을 대신한 것이다. 가계를 나누는 기준은 양반 가계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所蒙 祖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하였다. 곧, 양반 가계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거주지, 소몽조를 같이 하면서 소몽조와 그 직후의 조상들을 같은 산소에 모시고, 같이 족보를 편찬하는 등 문중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속한 가계를, 동일 가계로 처리하였다. 이상은 이하에서도 같다.

17) 조선시대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가계는 143가계였고, 이 143가계

그러나 가계가 밝혀지지 않는 나머지 5명(宋孝男, 李誠國, 朴之英, 朴崇賢, 李華立)의 사자관들의 신분이 궁급하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가계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를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기술직 중인이었거나,¹⁸⁾ 그와 사회 신분적 위계가 동등한 신분이었다고 추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선행의 연구에서 조선시대 잡과와 주학 입격자 7,739명의 가계를 『성원록』을 비롯한 기술직 중인 가계 기록에서 찾아본 결과, 90% 이상의 입격자들의 가계를 찾아내었다. 그런데 가계를 찾아내지 못한 입격자들은 거의 대부분 입격 시기가 이른 경우가 많았다. 곧, 17세기 전 후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18세기나 19세기는 지극히 소수였다.¹⁹⁾ 기술직 중인은 17세기 후반 경에 신분 형성이 완료되었고, 18세기부터 주요 기술직 중인 가계에서 잡과와 주학 입격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17세기 전반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가계가 밝혀진 경우 거의 대부분 기술직 중인 가계 출신이거나, 기술직 중인과 사회 신분적 위계가 동등한 신분 출신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조선후기 통신 사행 수행 사자관들 중에 가계를 찾아내지 못한 5명의 사자관들이 통신 사행을 수행한 시기는 모두 17세기였다(4명은 17세기 전반이었고, 1명은 17세기 후반이었다.). 따라서 이들 5명의 사자관의 신분도 기술직 중

에서 배출한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5,965명(전체 7,739명의 77.1%)이었으며, 9명 이상 배출한 가계는 155가계였고, 이 155가계에서 배출한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6,073명(전체의 78.5%)이었다. 한편 5명 이상 배출한 가계는 216가계였고, 이 216가계에서 배출한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6,454명(전체의 83.4%)이었으며, 3명 이상 배출한 가계는 300가계였고, 이 300가계에서 배출한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6,742명(전체의 87.1%)이었다(김두현, 앞의 책, 2013, 177~181쪽).

18) 李華立(본관 旌善)은 1714년(숙종 40) 식년시 의과 입격자 李峻芳(본관 전주)의 처외 조로 『全州李氏族譜』에 수록되어 있다. 李峻芳의 妻父가 池遇漢(본관 충주)이고, 지우한의 妻父가 절충장군을 지낸 李華立(본관 旌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앞의 『全州李氏族譜』, 1858, 권4, 33~34쪽). 기술직 중인과 혼인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李華立의 신분은 기술직 중인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19) 김두현, 앞의 책, 2013, 194쪽.

인이었거나, 그와 사회 신분적 위계가 동등한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가계가 밝혀진 12명의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이 속한 8가계에서 사자관을 얼마나 배출하였는가 궁금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자관을 지낸 자들의 명단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자청 선생은 알 수 있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사자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는 사자청 선생들의 가계별 배출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²⁰⁾ 그 현황을 근거로, 그리고 대일 외교사행 참여 역관을 탐구한 필자의 선행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앞의 8가계에서 사자청 선생을 배출한 양상과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을 배출한 양상을 각각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아래 <표 4>이다.

<표 4>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배출 가계의 사자청 선생 및 대일 사행 참여 역관 배출 양상

성관(가계)	수행 사자관	잡과와 주학 입격자	사자청 선생		참여 역관
			인원	순위	
金海金(02)	1	46	7	14	·
善山金(01)	1	16	9	8	1
全州李(02)	4	152	36	1	4
天安李01	1	30	2	35	·
漢川鄭(단)	2	9	15	4	·
洪川皮(01)	1	39	8	11	·
川寧玄(단)	1	214	4	23	10
南陽洪(04)	1	14	29	3	·

20) 김두헌, 앞의 책, 2013, 247~249쪽.

<표 4>와 같이 앞의 8가계에서는 사자청 선생을 모두 배출하였다. 많게는 36명, 적게는 4명을 배출하였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사자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는 539명의 사자청 선생 중에 가계가 파악된 자가 381명(전체의 70.7%)이었고, 이들 381명이 속한 가계가 96가계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96가계 중에 4명 이상의 사자청 선생을 배출한 가계가 30가계였고, 이 30가계에서 배출한 사자청 선생이 285명(전체의 52.9%)이었다고 밝혔다. 곧, 4명 이상의 사자청 선생을 배출한 30가계 출신의 사자청 선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30가계는 다른 가계에 비해 사자청 선생을 다수 배출한 가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8가계 중에 천안 이씨(01)가계 단지 한 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가계가 이 30가계 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가계들은 거의 대부분 다수의 사자청 선생을 배출한 가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가장 많은, 4명이나 되는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전주 이씨(02)가계에서는 36명이라는 가장 많은 사자청 선생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2명의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한천 정씨(단)가계에서는 사자청 선생을 15명 배출하였다. 사자청 선생을 다수 배출한 가계 순위에서 4위에 해당한다. 다수의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가계에서 역시 다수의 사자청 선생을 배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양상이 반드시 정비례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그러하였다. 예컨대 앞의 전주 이씨(02)가계와 함께 36명이나 되는 가장 많은 사자청 선생을 배출한 경주 이씨(04)가계(21)와, 사자청 선생을 29명 배출하여 세 번째로

21) 경주 이씨 李純亨의 가계인데, 16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줄곧 36명이나 되는 사자청 선생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6명 배출하였다. 이 가계 출신의 사자청 선생이나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모두 16세기 후반에 통신사행 일행으로 일본에 다녀오는 등 서사관으로 이름을 떨친 李海龍이었다. 이 가계의 세손별 사자관 배출 현황, 혼인 양상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김두현, 앞의 책, 2013, 238~240쪽).

많이 배출한 남양 홍씨(04) 가계에서는 모두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않았다.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양상과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을 배출한 양상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을까.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8가계에서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을 배출한 양상을 살펴본 결과가 앞서 제시한 <표 4>이다. <표 4>와 같이,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8가계 중에서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을 배출한 가계는 모두 3가계였다. 전주 이씨(02) 가계에서 4명, 천녕 현씨(단) 가계와 선산 김씨(01) 가계에서 각각 10명과 1명을 배출하였다. 이처럼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가계라고 해서 반드시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을 배출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였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체 8가계 중 3가계였으니,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관관계는 사자청 선생을 배출한 양상에 비하면 약했다.

이제는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과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을 모두 배출한 각 가계 출신의 앞의 사자관과 역관들이 어느 정도의 혈연관계에 있었는가를 알아보겠다. 또한 이들 가계에서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과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중 어느 기술관을 먼저 배출하였는가를 알아보겠다. 먼저 4명이나 되는 가장 많은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하였고, 36명이나 되는 가장 많은 사자청 선생을 배출한 전주 이씨(02) 가계를 대상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겠다. 그 결과가 아래 <가계도 1>이다.

<가계도 1>의 전주 이씨(02) 李仲枝의 가계에서는 조선시대에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152명 배출하였다. 이들 152명은 <가계도 1>에 처음으로 제시한 이충지의 후손들이었다.

<가계도 1> 전주 이씨 李仲枝의 가계도²²⁾

李仲枝	世根	亨遜	弼洪	雲祥	愷謙	翊臣 寫先 170	君錫 武科	仁芳 守門將	挺耆	☆彦佑 1764 寫先 267		
							明錫	宇芳	挺燾 1710 增譯	彦容 1747 式譯	經載 1789 式譯	○宜敍 1838 堂上官 1819 式譯
							☆三錫 1682 寫先 135	☆爾芳 1711 寫先 177				
							麟錫 寫先 155	☆日芳 1719 寫先 184	廷馥	彦箕 學生	○櫨 1818 堂下官 1805 增譯	○宜炫 1841 堂下官 1834 式譯
	世亨	貞	春溫	誠一 1607 籌學	仁民 1627 籌學	東白 1666- 1690 籌學	萬郁 1666- 1690 籌學	億昌 1711 式譯	景漢 1750 式譯	○儀龍 1811 漢學上 通事 1771 式譯		

이중지는 『사자청선생안』에 170번째의 사자관으로 수록되어 있는 李翊臣의 6대 조부였다.²³⁾ 이 가계 출신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李彦佑,

22) <가계도 1>에서 ‘寫先○○○’은 『寫字廳先生案』에 사자청 선생으로 수록되어 있는 순번을 뜻하고, ‘○○○○堂上官 또는 堂下官’은 ○○○○년 문위행에 堂上官 또는 堂下官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式譯’, ‘增譯’, ‘籌學’은 식년시 역과 입격자, 증광시 역과 입격자, 주학 입격자를 각각 뜻한다. 이상은 이하에서도 같다.

23) 조선시대 전주 이씨가 성관인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모두 533명이었는데, 이들의 가계를 찾아본 결과, 이들 중 500명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들 500명은 다시 22가계로 나뉘어는데, 앞의 22가계 중에 李世榮의 가계에서 가장 많은 175명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배출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중지의 가계에서 152명을 배출하였다(김두현, 『앞의 책』, 2013, 156~157쪽). 이 두 가계는 李子興부터 가계가 비로소 연결되는데, 이중지는 이자홍의 7세손이었고, 이세영은 9세손이었다. 이들 두 가계의 구성원들은 철종 9년(1858)에 자신들이 같은 기술직 중인 가계라는 혈연 의식을 갖고 앞서 언급한 족보를 같이 편찬하기도 하였다.

李三錫, 李日芳, 李爾芳 등 4명에게는 <가계도 1>에 ‘☆’ 표시하였고,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 李宜敍, 李樞, 李宜炫, 李儀龍 등 4명에게는 ‘○’ 표시하였다. <가계도 1>과 같이, 이중지의 가계에서 배출한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4명과,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 4명 등 총 8명 중에 이의룡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서로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다. 이들 7명은 모두 『사자청선생안』에 사자관으로 수록되어 있는 이익신의 후손들이었는데, 이삼석은 이익신의 아들, 이이방과 이일방은 손자, 이언우는 현손, 이숙은 6세손, 이의서와 이의현은 7세손이었다.²⁴⁾ 이의룡 한 명만 이익신의 후손이 아니라 먼 방계 후손이었다.

그런데 <가계도 1>에는 눈여겨 볼만한 점이 있다. 그것은 전주 이씨 (02) 이중지의 가계에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이 먼저 배출되고 나서 이들의 직계 또는 방계 후손에서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이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통신사행 및 문위행에 역관으로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손들이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이다. 대일 외교 사행에 역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자관보다 컸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어느 한 가계에서 대일 외교 사행 역관이 먼저 배출되고 나서 나중에 사자관이 배출되었을 것이라고 일단은 예견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과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을 모두 배출한 나머지 두 가계는 어떠한

24) 『성원록』에 수록되어 있는 이익신의 아들은 8명이다. 이들 중 長子 李君錫과 次子 李明錫은 잠과와 주학에 입격한 사실이 없었고, 『사자청선생안』에 사자청 선생으로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균석은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이익신의 넷째 아들 李用錫은 숙종 8년(1682) 증광시 의과에 입격하였고, 셋째 아들 李三錫, 다섯째 아들 李圭錫, 여섯째 아들 李隣錫, 일곱째 아들 李英錫, 여덟째 아들 李武錫 등 5명은 『사자청선생안』에 각각 135번째, 150번째, 155번째, 157번째, 163번째의 사자청 선생으로 수록되어 있다. 『사자청선생안』에 수록된 사자관들 중에 아들이 5명이나 사자청 선생이었던 경우는 이익신이 유일하다. 그만큼 이익신의 직계 후손들 중에 사자관에 진출한 자들이 많았다.

였을까 궁금하다.

먼저 천녕 현씨 玄壽謙(1513~1585)의 가계를 연구 대상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겠다. 천녕 현씨가 본관인 현전하는 조선시대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모두 213명이다. 이들은 16세기에 생존한 현수겸의 후손들이었다.²⁵⁾ 현수겸의 후손 중에 통신사행 및 문위행에 역관으로 참여한 사람은 10명이었고,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으로 참여한 사람은 玄文龜 한 명이었다. 이들의 혈연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래 <가계도 2>이다. <가계도 2>에서도 천녕 현씨 기술직 중인 가계 출신으로 통신사행 및 문위행에 참여한 역관 10명은 ‘○’ 표시하였고, 통신사행에 수행한 사자관 한 명은 ‘☆’ 표시하였다.

<가계도 2> 천녕 현씨 玄壽謙의 가계도 1

玄壽謙	武	得洪	瑄	萬始	夏誼	☆文龜			
	龍	仁祥	頊	德宇	珪	尙夏	深	○啓根	
								啓楨	○斌
	虎	哲祥	宇一	德萬	○泰心				
			漢一	○德潤	○泰翼				
				德昌	泰元	商祿	○義溫		
						商說	○義洵		
					○泰衡	商尹	時錫	漢敏	○學魯
				○德淵					

<가계도 2>와 같이, 현수겸의 후손 중에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이었던 현문구와,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이었던 9명의 혈연관계는 이미 동고조 8촌이라는 친족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일가에 해당하였다.

25) 현수겸의 천녕 현씨 기술직 중인 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김두현, 「18~19세기 중인 사회의 적서 차별과 공존」 『국학연구』 12, 한국국학진흥원, 2008.

그러나 이들은 현수겸이라는 자신들이 공동으로 모시는 소몽조의 후손들이었다. 현수겸은 현문구에게 6대 조부가 되고, 玄德萬(玄泰心の父), 玄德潤, 玄德淵 등에게는 고조가 되었다. 이런 정도의 혈연관계라면 이들이 같은 가문 출신이라는 가문 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문중 내에서나 사회 생활하는데 서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였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현문구가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으로 대일 외교 사행에 참여한 시기를 같은 천녕 현씨 가문 출신의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들이 대일 외교 사행에 참여한 시기와 비교하여 보니, 중간 시기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현문구는 자신이 속한 천녕 현씨 가문 출신 대일본 사행 참여 역관들로부터 자신이 대일 외교 사행에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거나, 이들이 대일 외교 사행에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어서 선산 김씨(01) 金尙琛의 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가계도 3>에서 제시한 선산 김씨 김상침의 가계는 선산 김씨를 성관으로 하는 기술직 중인 가계 중에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계였다. 이 가계에서 배출한 잡과와 주학 입격자는 모두 16명이었다. 과목별로는 역과 12명, 의과 1명, 운과 2명, 율과 1명이었으며, 주학 입격자는 없었다. 이들은 모두 사역원 직장을 지낸 김상침의 후손들이었다.²⁶⁾ 그러나 이 가계 출신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은 金天秀 한 명뿐이었다. 또한 『성원록』의 선산 김씨 가계 기록에 김천수의 직계 조상과 후손 중에 사자관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없었다.

26) 이 선산 김씨 기술직 중인 가계는 『성원록』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앞의 『성원록』, 1985, 368~370쪽).

<가계도 3> 선산 김씨 金尙琛의 가계도

金尙琛 司譯院 直長	時燦 1660 式譯	鼎瑞 1693 式譯	★天秀 寫先247 隨行 寫字官	德淳 1773 增譯	泰敬 司譯院 判官	○繼運 1831 式譯 참여譯官	奭準 1852 式譯	載驥 1876 式譯
------------------	------------------	------------------	---------------------------	------------------	-----------------	---------------------------	------------------	------------------

그러나 이 가계 출신 중에 역과 입격자가 12명으로 잡과 과목 중 가장 많았다. 김천수의 직계 선조와 후손 중에 역과 입격자는 무려 6명이나 되었다. <가계도 3>과 같이, 김천수의 조부 金時燦(1660년 식년시 역과), 父 金鼎瑞(1693년 식년시 역과), 아들 金德淳(1773년 증광시 역과), 증손 金繼運(1831년 식년시 역과), 현손 金奭準(1852년 식년시 역과), 6세손 金載驥(1876년 식년시 역과) 등이 역과에 입격하였다. 한편 김천수의 증조 김상침과 손자 金泰敬은 모두 역과에 입격하지 않았지만, 각각 사역원 직장과 사역원 관관을 지냈다. 곧, 김천수의 증조부터 그의 6세손까지 직계 가계에서 김천수만 제외하고 모두 사역원에서 외교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가계도 3>의 역과 입격자 중에서 김계운이 통신사행 수행 역관에 참여하였다. 김계운은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김천수의 증손이었다. 따라서 김천수가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그의 증손 김계운이 통신사행 역관으로 참여한 것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상에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과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을 모두 배출한 세 기술직 중인 가계를 대상으로, 이들 가계에서 배출한 앞의 사자관들과 역관들이 어느 정도의 혈연관계에 있었는가, 이 두 기술관 중 어느 기술관부터 배출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 두 기술관들이 대부분은 가까운 동고조 팔촌이라는 친족 내의 혈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친족의 범위를 벗어난 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수는 극히 적었다. 하지만 친족 범위를 벗어난 경우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같은 가문 출신이라는 가문의식을 지니고 있었을 정도의 혈연관계에 있었다. 이는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과 대일본사행 역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속한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런데 이 세 가계 중에 전주 이씨(02) 이중지의 가계와 선산 김씨(01) 김상침의 가계에서는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이 먼저 배출되고 나서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이 배출되었다. 다만 천녕 현씨 현수겸의 가계에서는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들이 배출되는 중간의 시기에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이 배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일본 사행에 참여한 기술관 중에 역관이 먼저 배출되고 나서 사자관이 배출되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 쉽다. 왜냐하면 외교 사행에 역관이 행한 역할이 다른 기술관의 그것보다 중요하였을 것이라고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가계 모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대일 외교 사행에 참여한 역관의 역할과 사자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당시 사회에서 거의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을 곧, 이 두 역할에 대한 비중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조선후기에 각 기술직 중인 가계 중에 어느 특정의 기술관만 배출한 가계가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역관만, 의관만, 율관만, 운관만, 산원만, 사자관만, 화원만 배출한 가계는 전체 기술직 중인 가계 중에 그야말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그러한 가계라 할지라도 다른 기술관을 배출한 기술직 중인 가계와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²⁷⁾ 이는 기술직 중인 사회에서 여러 기술직 중에서 역관이나 의관이 다른 기술직에 비해 약간은 선호의 대상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선호의 정도가 그리고 그 직무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주학에 입격하고 나서 역과나 의과에 입격

27) 김두헌, 앞의 책, 2013, 190~191쪽.

한 자보다는 적었지만, 역과나 의과에 입격하고 나서 주학에 입격한 자도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²⁸⁾도 그 하나의 예가 된다. 대일 사행에 참여한 역관의 역할이나 사자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IV. 혼인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혼인 양상 곧, 인척관계는 어떠하였을까. 이들의 혼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妻父, 외조를 찾아내어, 그 妻父와 외조가 속한 가계에서 대일 외교 사행 사자관과 역관을 각각 얼마나 배출하였는가를 알아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의 妻父와 외조를 『성원록』을 비롯한 기술직 중인의 가계 기록에 찾아보았다. 그 결과가 아래 <표 5>이다.

<표 5>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의 외조 및 처부

순번	성명	수행 연도	외조	妻父
1	金義信(金海02)	1643 1655	·	曹孝悅(昌寧)
2	金天秀(善山01)	1748	周崙(尙州)	李東蘊(全州)
				趙宋基(平壤)
3	朴崇賢(미상)	1643	·	·
4	朴之英(미상)	1636	·	·
5	宋孝男(미상)	1617	·	·
6	李三錫(全州02)	1682	金偉賢(羅州)	權 愉(安東)
7	李誠國(미상)	1624	·	·

28) 김두헌, 앞의 책, 2013, 124쪽~125쪽.

순번	성명	수행 연도	외조	妻父
8	李壽長(天安01)	1711	崔承綽(江陵)	崔爾泰(水原)
9	李彥佑(全州02)	1764	金漢齡(固城)	金鼎呂(慶州)
10	李爾芳(全州02)	1711	權 愉(安東)	鄭時興(慶州)
			金時徵(金海)	韓英傑(淸州)
11	李日芳(全州02)	1719	朴再新(務安)	鄭熙碩(溫陽)
12	李華立(미상)	1682	·	·
13	鄭世榮(漢川단)	1719	李震白(慶州)	鄭之楨(河東)
				李世謙(江陰)
14	鄭 琛(漢川단)	1655	李義貞(陰竹)	金仲祥(龍宮)
				卞應參(密陽)
15	皮宗鼎(洪川01)	1811	金應五(安東)	張天楨(白川)
16	玄文龜(川寧단)	1748	鄭遇益(河東)	李寅顯(天安)
17	洪聖源(南陽04)	1764	·	卞世和(密陽)

<표 5>와 같이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17명의 외조와 妻父를 찾아본 결과, 그 모두를 알게 된 자가 11명이었고, 妻父만 알게 된 자가 2명(金義信, 洪聖源)이었으며, 그 모두를 알 수 없는 자가 5명이었다. 그리고 외조와 妻父를 모두 알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이방은 외조와 妻父를 각각 2명 알게 되었고, 김천수, 정세영, 정침은 외조는 1명, 妻父는 2명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표 5>에 수록된 앞의 12명의 외조와 妻父는 모두 27명이 된다.

그런데 이들 27명이 속한 가계 중에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가계로 확인된 가계는 현재 없다. 앞의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가계는 김해 김씨, 선산 김씨, 전주 이씨, 한천 정씨, 홍천 피씨, 천녕 현씨, 남양 홍씨 가계 등이다. 그런데 앞의 27명의 姓貫 중에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성관은 오직 김천수의 妻父인 李東馥의 성관인 전주 이씨뿐이다. 그러나 이동복도 전주

이씨 어느 가계 출신이었는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앞의 <표 5>에서 제시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외조와 妻父 27명 중에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이었던 사람도 없다.

그런데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기술직 중인 사회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친 인척관계의 범위가 예상외로 넓었다고 주장하였다.²⁹⁾ 그렇다면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들과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들 사이에서 맺어진 상대적으로 먼 인척관계도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실증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 궁리 끝에,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하였고,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도 배출한, 앞의 <표 3>에서 제시한 세 가계에서 편찬한 족보에서 그 사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곧, 해당 족보에 수록된 인물들 중에 대일 외교 사행 수행 사자관과 참여 역관이 얼마나 수록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세 가계 중에 선산 김씨 가계에서 편찬한 족보는 현재까지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만 전주 이씨 가계와 천녕 현씨 가계에서 편찬한 족보는 수집하였다. 앞의 두 족보 중 고종 4년(1867)에 편찬된 『천녕현씨세보』³⁰⁾에서 그 사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가 아래 <가계도 4>이다.

29) 이에 대한 사례로, 필자의 선행 연구에 언급된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최초로 박해를 받은 기술직 중인 가계 출신 金範禹와 그의 손자 金東曄의 인척 관계를 들 수 있다. 김범우를 전교한 사람은 그와 친하게 지냈던 李驥이었다. 이벽은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최초의 신자였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庶母를 매개로 하여 상당히 먼 인척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 김범우가 정조 9년(1785) 을사추조적발 사건으로 박해를 받은 이후 김범우의 손자 김동엽은 경상남도 밀양에서 거주하였다. 밀양에 거주하면서 김동엽은 서울에 거주하였던 기술직 중인 가계 출신 3명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도 상당히 먼 인척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김두현, 『金範禹와 그의 가계』, 『교회사연구』 34, 2010).

30) 앞의 『川寧玄氏世譜』, 1867.

<가계도 4> 천녕 현씨 玄壽謙의 가계도 2

玄壽謙	武	夢祥	世逸	晉哲	洪智源 本南陽	卞廷泰 ○父,爾 標						
			克逸	晉明	達源	信綱	載觀	啓祚	安聖希	尹得浩	☆李宜敍 本全州	
		得洪	瑋	卞承俊 本密陽	邊永和 本原州	○金圖南 本牛峯						
			瑄	萬始	夏誼	☆文龜						
					崔岱齊 本清州	○洪聖龜 本南陽						
		李信富 本旌善	李義方	○李尙 漢								
		崔澤 本慶州	○崔裕 立	○崔楹								
	龍	仁祥	頊	德宇	珏	尙夏	深	○啓根				
								啓楨	○斌			
	虎	哲祥	宇一	德萬	○泰 心							
			漢一	○德 潤	泰璧	○朴道洵 本務安						
					○泰 翼							
				德昌	泰元	商祿	○義 溫					
						商說	○義 洵	膺祐	學文	李經載 本全州	☆李宜敍	
							○義 浚	膺祐	○李本修 本南陽			
					○泰 衡	商尹	時錫	漢敏	○學魯			
				○德 淵								

<가계도 4>에 제시한 것처럼, 고종 4년(1867)에 편찬된 『천녕현씨세보』에 수록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은 2명이다. 이들은 천녕 현씨 기

직 중인 가계 출신 현문구와 전주 이씨 기술직 중인 가계 출신 이의서인데, <가계도 4>에 이들에게 ‘☆’ 표시하였다. 현문구는 앞서 제시한 <가계도 2>와 같이 수록되어 있다. 반면에 이의서는 두 번 수록되어 있다. 한번은 尹得浩의 사위로, 또 한번은 李經載의 아들로 수록되어 있다. 尹得浩는 玄啓祚의 외손녀의 사위로, 이경재는 玄學文의 사위로 각각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앞의 『천녕현씨세보』에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으로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가계도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19명인데, <가계도 4>에 ‘○’으로 표시하였다. 이들 19명 중에 성관이 천녕 현씨인 자는 12명이고, 다른 성관인 자는 7명이다. 이들 7명은 천녕 현씨의 사위, 외손, 외손녀 사위 등으로 앞의 족보에 수록되어 있다. 앞의 19명은 서로 가까운 인척관계를 형성한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먼 인척관계를 형성한 경우도 있었다. 가까운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의 예로,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이었던 玄義洵과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이었던 이의서의 인척관계를 들 수 있다. 현의순의 증손녀 사위가 이경재인데, 이경재의 아들이 이의서였던 것이다. 먼 인척관계를 형성한 경우의 예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이었던 현문구와 역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이었던 이의서를 들 수 있다. 현문구의 6대조부가 현수겸이었고, 이의서의 처외조가 安聖希였으며, 안성희의 처 9대조가 현수겸이었다. 한편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이었던 현문구와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이었던 卞爾標, 金圖南, 洪聖龜, 朴道洵 등도 서로 혹은 가까운 또는 먼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과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 사이에서 얽히고설킨 인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근거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으로 선발하는 데 본인의 능력은 물론, 부계 위주의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외가, 처가, 심지어 처외가 등과의 인척관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인척관계의 폭이 예상보다 넓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개인의 능력이었다. 그것에 비하면 혈연관계나 인척관계는 副次的인 것이었다. 이로써 부계 위주의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인척관계도 조선후기 기술직 중인 사회의 벌열화 양상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필자의 선행 연구 결과를 입증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관이 되는데 혈연관계나 인척관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개인의 능력이었으며, 잡과와 주학에 입격하거나 기술관이 되기 위해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기술직 중인 사회 내에서 서로 경쟁하였다는 필자의 선행 연구 결과도 입증하게 되었다.

V. 결론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신분과 가계 및 인척관계를 탐구한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대일 사행 기록들을 통해 이들 사자관들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총 인원이 18명이었던 사실을 밝혔고, 이들이 수록된 典據들을 일일이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들이 『사자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가 『사자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사자청선생안』의 사자청 선생들이 사자청의 고위 사자관직을 역임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이 실제로 실력 있는 사자관들이었다는 것을 방증하였다. 이어서 『사자청선생안』에 이들에 대해 수록된 내용을 보완하여, 『朝鮮後期 通信使行 隨行 寫字官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본고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이는 앞으로 조선시대 사자관과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을 연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이 속한 각 가계를 찾아내고, 찾아낸 각 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속한 각 가계가 대부분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다수 배출한 명문 기술직 중인 가계였다는 사실과, 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일부 사자관들은 모두 비교적 이른 시기인 17세기에 통신사행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가계가 밝혀진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신분은 기술직 중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가계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자관들의 신분은 기술직 중인이거나 그와 동등한 사회적 위계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주요 기술직 중인 가계에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다수 배출한 경향도 있었지만, 한 명만 배출한 가계도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요 기술직 중인 가계의 별열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가계의 폭이 예상보다 넓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명 이상의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배출한 각 가계 출신의 수행 사자관들이 대부분 서로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을 선발하는데, 부계 혈통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과 대일본사행 수행 역관을 모두 배출한 가계에서 참여 역관을 먼저 배출한 것이 아니라 수행 사자관을 먼저 배출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서 수행 사자관의 역할도 참여 역관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통신사행 수행 사자관들의 혼인 양상을 살펴본 결과, 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들과 일본사행 참여 역관들 사이에서, 외가와 처가 등 직접적인 혼인 관계를 형성한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사이를 벗어났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인척관계를 형성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이 사실을 근거로, 통신사행 수행 사자

관을 선발하는데 본인의 능력은 물론, 부계 위주의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외가, 처가, 심지어 처외가 등의 인척관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인척관계의 폭은 예상보다 넓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계 위주의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인척관계도 조선후기 기술직 중인 사회의 별얼화 양상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필자의 선행 연구 결과를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관을 선발하는데 개인이 지닌 능력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기술관에 진출하기 위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기술직 중인 사회 내에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였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도 입증하게 되었다.

〈부록〉 자료 : 『朝鮮後期 通信使行 隨行 寫字官案』³¹⁾

金義信 本金海02 효종 6(1655) 및 인조21(1643)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092 미상()生 父<繼輝>, 祖<天壽>, 曾祖<順孫>, 外祖, 妻父<曹孝悅本昌寧>, 官中部參奉<寫字官上護軍中部參奉>, 號<雪峯>, <名筆>, 子<寫字官上護軍以鍊(寫字廳先生案0114)·寫字官上護軍以錫(寫字廳先生案0131)>, <『姓源錄』, 336쪽>

金天秀 本善山01 영조24(1748)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247 미상()生 父<譯科折衝鼎奇(1693式譯)>, 祖<譯科嘉善贈工參是燦(1660式譯)>, 曾祖<院直贈工議尙琛>, 外祖<周崙本尙州>, 妻父<李東馥本全州>, 后妻父<醫科趙宋基本平壤(1708式醫)>, 官同知<寫字官同中>, 龜瑞(寫字廳先生案0223)姪, 子<譯科德淳(1773增譯)>, <『姓源錄』, 369쪽>

朴崇賢 本미상 인조21(1643)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085 미상()生 父, 祖, 曾祖, 外祖, 妻父, 字, 官郡守

朴之英 本미상 인조14(1636)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063 미상()生 父, 祖, 曾祖, 外祖, 妻父, 字, 官主簿

宋孝男 本竹山00 광해 9(1617)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033 미상()生 父, 祖, 曾祖, 外祖, 妻父, 字, 官獄參

李三錫 本全州02 숙종 8(1682)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135 「丙申(1656)生, 丁卯(1687)卒」 父<寫字同中翊臣(寫字廳先生案0110)>, 祖<武科摠戎別將悌謙>, 曾祖<譯科同中雲祥(1605增譯)>, 外祖<譯科金偉賢本羅州(1633增譯)>, 妻父<郡守權楡本安東(1639式醫)>, 官察訪<寫字官察訪>, 字「錫予」, 號「雪月堂」, 翊臣(寫字廳先生

31) 본 자료의 ‘일러두기’는 다음 필자의 선행 연구의 ‘일러두기’를 참고하기 바란다(김두헌, 앞의 책, 2013, 336~338쪽).

案0110)子, 系子『同樞爾芳(寫字廳先生案0177)』, <『姓源錄』, 75쪽, 80쪽>, 『全州李氏族譜』, 4권, 20~26쪽」

李誠國 本미상 인조 7(1624)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034 미상()生 父, 祖, 曾祖, 外祖, 妻父, 字, 官

李壽長 本天安01 숙종37(1711)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148 미상()生 父<律科僉知德寬(1666式律)>, 祖<通德富吉>, 曾祖<同中彥忠>, 外祖<崔承綽本江陵>, 妻父<崔爾泰本水原>, 官察訪<寫字官牧官>, 號<貞谷>, 子<譯科判官寅芳(1699增譯)>, <『姓源錄』, 199~200쪽>

李彥佑 本全州02 영조40(1764)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267 『甲辰(1724)生』 父『挺耆』, 祖『守門將察訪仁芳』, 曾祖『武科嘉善君錫』, 外祖『僉使金漢齡本固城』, 妻父『譯科主簿金鼎呂本慶州』, 官察訪, 字『公弼』, 子『上護軍根(寫字廳先生案0300)』, <『姓源錄』, 침 72쪽>, 『全州李氏族譜』, 권4, 20쪽 및 권5, 7~10쪽」

李爾芳 本全州02 숙종37(1711)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177 『丙辰(1676)生, 己巳(1749)卒』 父『察訪三錫(寫字廳先生案0135)』, 生父『武科萬戶明錫』, 祖『贈刑曹判書行嘉義同樞翊臣(寫字廳先生案0110)』, 曾祖『贈判尹行摠戎別將悌謙』, 外祖『內醫郡守權愴本安東(1639式醫)』, 生外祖『譯科折衝金時徵本金海(1651式譯)』, 妻父『部將鄭時興本慶州』, 後妻父『韓英傑本清州』, 官同知, 字『馨遠』, 三錫(寫字廳先生案0135)子, <『姓源錄』, 75쪽, 80쪽>, 『全州李氏族譜』, 권4, 20~26쪽)」

李日芳 本全州02 숙종45(1719)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184 『乙丑(1685)生, 己未(1739)卒』 父『上護軍麟錫(寫字廳先生案0155)』, 祖『贈刑曹判書行嘉義同樞翊臣(寫字廳先生案0070)』, 曾祖『贈判尹行摠戎別將悌謙』, 外祖『贈參議朴再新本務安』, 妻父『主簿鄭熙碩本溫陽』, 官<寫僉中上護軍>『僉樞』, 字『馨叔』, 麟錫(寫字廳先生案0155)子, 子

<嘉善寫字官同中挺猷(寫字廳先生案0257)·寫字官上護軍僉使挺穉(寫字廳先生案0211)>, <『姓源錄』, 76쪽, 80~81쪽>, 『『全州李氏族譜』, 권4, 20~32쪽』

李華立 本미상 숙종 8(1682)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127 미상()生 父, 祖, 曾祖, 外祖, 妻父, 字, 官僉知

鄭世榮 성0901 숙종45(1719)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本漢川단 寫字廳先生案 175 미상()生 父<寫字官上護軍泰興(寫字廳先生案0128)>, 祖<寫字官上護軍名碩(寫字廳先生案0109)>, 曾祖<繕奉璜>, 外祖<李震白本慶州>, 妻父<鄭之相本河東>, 后妻父<李世謙本江陰>, 官五衛將<寫字官上護軍>, 泰興(寫字廳先生案0128)子, 子<寫字官嘉善尙禧(寫字廳先生案0204)·寫字官內醫僉中得禧(寫字廳先生案0212, 1727增醫)·醫科惠主晩禧(1740增醫)>, <『姓源錄』, 900~901쪽>

鄭 琛 本漢川단 효종 6(1655)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086 미상()生 父<寫字官嘉善栢壽(寫字廳先生案0046)>, 祖<贈戶參行司果致>, 曾祖<司猛潤山>, 外祖<李義貞本陰竹>, 妻父<金仲祥本龍宮>, 后妻父<卞應參本密陽>, 官郡守<寫字官郡守東部參奉>, 栢壽(寫字廳先生案0046)子, 號<西谷>, 子<寫字官醫科斗錫(寫字廳先生案0113, 1662增醫)>, <『姓源錄』, 900쪽>

皮宗鼎 本洪川01 순조11(1811)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353 미상()生 父<載禎>, 祖<武科弘紳>, 曾祖<通政聖麟>, 外祖<金應五本安東>, 妻父<張天楫本白川>, 官上護軍<寫字官上護軍>, 系子<院折衝尙龍(1813增譯)>, <『姓源錄』, 975쪽>

玄文龜 本川寧단 영조24(1748)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227 미상()生 父<譯科折衝夏誼(1702式譯)>, 祖<譯科正萬始(1669式譯)>, 曾祖<醫科軍資正瑄(1645式醫)>, 外祖<鄭遇益本河東>, 妻父『李寅顯本天安』, 官察訪<寫字官>『察訪』, 字『蕃叔』, <『姓源錄』, 702쪽>, 『

『川寧玄氏世譜』, 1권, 36~38쪽」

洪聖源 本南陽04 영조40(1764)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 寫字廳先生案 260 미상()生 父<得基>, 祖<寫字官同中后績(寫字廳先生案0156)>, 曾祖<自萬>, 外祖, 妻父<院判卞世和>, 官崇祿<寫字官知中>, 億基(寫字廳先生案0209)姪, 子<寫字官崇祿知中慶雲(寫字廳先生案0302)>, <『姓源錄』, 520쪽>

| 참고문헌 |

1. 자료

- 『東槎錄』(김현문 지음, 백옥경 옮김, 해안, 2007)
『戊辰(1748)二月十一日通信使一行座目』(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 종가문서)
『文化八年信使一行座目其外雜記』(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 종가문서)
『姓源錄』(李昌鉉等纂, 旴晨社 影印, 1985)
『姓源錄續編』(5책, 필사본, 개인 소장)
『譯科八世譜』(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譯等第譜』(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醫科八世譜』(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醫等第譜』(1책, 국립중앙도서관)
『醫譯籌八世譜』(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全州李氏族譜』(8권 8책, 1858,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朝鮮通信使一行座目』(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 종가문서)
『籌學八世譜』(1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川寧玄氏世譜』(4권 4책, 1867, 개인 소장)
『通信使謄錄』(6책, 1991 영인,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畫寫兩家譜錄』(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 저서

- 李元植, 『朝鮮通信使』, 민음사, 1991
김두현, 2013,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손숙경, 『중인 김범우 가문과 그들의 문서』,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1992.

3. 논문

- 강대민·이정은, 「조선통신사 수행회원 연구」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0, 學古房, 2008.
김동철, 「倭館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0, 學古房, 2008.

- 김두헌, 『『增補寫字廳先生案』과 조선시대 사자관의 신분』 『古文書研究』 24, 한국고문서학회, 2004.
- 김두헌, 『差備待令畫員의 신분과 세전 및 혼인』 『전북사학』 31, 전북사학회, 2007
- 김두헌, 『18~19세기 중인 사회의 적서 차별과 공존』 『국학연구』 12, 한국국학진흥원, 2008.
- 김두헌, 『金範禹와 그의 가계』, 『교회사연구』 34,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 김두헌,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동북아논총』 41,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윤유숙,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 이정은, 『朝鮮 通信使 隨行 畫員이 日本에 남긴 繪畫 特性』 『傳統文化論叢』 12, 2004.
- 이정은,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 畫員의 選拔要因』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0, 學古房, 2008.
- 이철성, 『통신사와 연행사의 비교연구』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 장순순, 『朝鮮時代 通信使 研究의 現況과 課題 -한국측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 조 광, 『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와 쟁점사항』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 趙誠乙, 『韓國과 日本의 華夷觀의 變化와 相互認識 -朝鮮後期和 德川幕府期를 중심으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 韓泰文, 『通信使 往來를 통한 文化交流』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 현명철, 『통신사 단절과 서계 문제』, 『통신사 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 홍선표, 『17·18世紀의 韓日間 繪畫交涉』,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79.
- 홍선표,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 畫員의 과건과 역할』 『미술사연구』 205, 1997.
- 홍선표, 『朝鮮時代 繪畫史 研究의 새로운 시각』 『서평문화』 35, 1999.
- 홍선표,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 畫員의 繪畫 活動』 『미술사논단』 6, 1998.

- 홍선표,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과 일본 南畵」, 『조선통신사연구』 1, 2005.
- 홍선표, 1997, 「조선후기의 한·일 간 畵籍의 交流」, 『미술사연구』 11. - 출처 확인
요망-
- 홍성덕,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 1992.
- 홍성덕,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涉」, 『韓日關係史研究』 제3집, 한일
관계사연구회, 1995.
- 홍성덕,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韓日關係史研究』 제
11집, 한일관계사학회, 1999.
- 李元植, 「江戸時代における朝鮮通信使の遺墨について」, 『朝鮮學報』 88, 1978.

투고일: 2016.09.28. 심사완료일: 2016.11.21. 게재 확정일: 2016.12.07.

| Abstract |

The Social Status and Lineage and Marriage of the SaJaGuans(寫字官) who followed TongSinSa(通信使) in the late JoSun Dyansty(朝鮮)

Kim, doo-hean

This paper analyzed the social status and lineage and marriage of the SaJaGuans(寫字官, official transcriber) those who followed TongSinSa(通信使, diplomacy party assigned from JoSun to Japan) in the late JoSun Dyansty(朝鮮). This study on above issues first was performed. The results is this; first, through reserch on the diplomatic materials were written the diplomatic relation history between JoSun and Japan, the member of the SaJaGuans(寫字官) correctly was confirmed. second, through the SaJaCheongSeonSangAn(寫字廳先生案, high official transcriber rosters), it was proved that they were high SaJaGuans of SaJaCheong(寫字廳). third, through the reserch on the their family records, their social status was Jungin(中人) or the same social rank status. Their families were powerful families in the Jungin society, and formed marriage relationship with the families produced the OyugGuans(譯官) who followed TongSinSa and conducted MunUiHang(問慰行) to such a degree as have an effect on appointment. Absolutely it was known that the top qualification element to be the SaJaGuan who followed TongSinSa was the individual ability. But although smaller than the individual ability, the social position of the lineage and the marriage relationship in Jungin(中人) society affected to some extent on the oppointment of the SaJaGuan who followed TongSinSa.

Key words: TongSinSa(通信使, diplomacy party assigned from JoSun to Japan), SaJaGuans(寫字官, official transcriber), Jungin(中人), status, lineage, marriage